

화순군 농업인 실용교육 코로나도 꺾지 못한 열기

비대면 교육 수강률 높아...200명 모집 교육에 370여 명 몰려



화순군이 진행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달 12일부터 유튜브 브채널과 밴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벼, 고추, 복숭아, 옥수수 등 품목별 교육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집합 대면 교육과 비교해 교육의 질과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교육의 장점이 주목받으며 수강생이 크게 늘었다.

군은 애초 교육 참여자 200명을 목표로 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난 5일 기준 367명이 교육을 신청해 수강 중이다.

유튜브와 밴드의 댓글에서는 '편한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 영상을 여러 차례 재생하며 반복 학습을 했다'는 후기와 다음 교육 일정을 문의하는 댓글이 많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벼, 고추,

복숭아, 옥수수 등 10개 품목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품목의 전문가를 초빙해 화순군 상황을 반영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직관적인 편집을 통해 많은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동영상 교육 내용이 잘 전달될까, 접근성은 괜찮을까, 비대면 교육에 걱정이 있었다"면서 "계획보다 더 많은 농업인이 시·공간적 제약 없는 비대면 교육의 활성화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시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순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밴드와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사인머스켓 과정, 23일 시작하는 농업인 건강교육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19일까지...취·창업교실·생활문화교실 등 19개 과목 운영

담양군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상반기 여성회관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취미 활동을 통한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취·창업교실 및 생활문화교실 2개 반 19개 과목을 운영한다.

기존 요양보호사, 홈패션(초·중급), 양금플라워, 바리스타2급, 제빵기능사, 우쿠렐라, 생활요리만들기, 도자기공예 등 17개 과목과 경력단절 여성들의 부업활동을 위한 리본공예반과 개인소양 과목인 한국화그리기 2개 과정을 신설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강생 모집인원을 과목별 10명 이하로 제한했으며, 비말차단을 위한 가



림막 설치, 분무소독 및 발열체크를 수시로 실시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운영키로 했다.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은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운영되며, 수강료는 과목당 5만원(월 1만원)이나 기초(생계·생계)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결혼이주여성 등은 무료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설 코로나 확산 방지 경로당 임시휴관

구례군은 설 연휴 동안 전국적인 이동과 가족모임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관내 278개소 경로당을 임시 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로당 임시휴관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준수와 설 연휴 대비 지역 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군은 그동안 관내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코로나19 관련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비상연락체계 확립, 손소독 및 발열체크기 비치, 정기적인 방역소독 실시 등 수시로 경로당 관리점검을 진행하여 코로나 19 감염병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나주시, 과수화상병 예방 첫 걸음 '의심궤양 제거'

정지전정 작업 시 '가지궤양' 꼼꼼한 예찰 필요...발생 부위 중심 하단 40~70cm 이상 제거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가지궤양 제거 등 겨울철 꼼꼼한 과원관리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병해충에 의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잎과 줄기, 열매가 까맣게 고사하는 병으로 마땅한 치료제가 없고 전염력이 강해 적기 방제를 통한 예방만이 최선이다.

여기서 가지궤양이란 병해충에 의해 가지가 함몰되거나 말라 죽은 현상을 의미한다.

고사한 가지는 월동하는 병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이듬해 병해충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 정지전정 작업 시 궤양이 의심되는 가지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가지 제거는 궤양이 발생한 부위를 중심으로 '하단 40~70cm 이상'을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과원 출입 전·후 작업복과 전정가위, 톱 등 작업도구는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시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정지예찰, 예방수칙을 농가 스스로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현수막, 리플렛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내달 초쯤 화상병 동계 약제 배포를 통해 배(3월 말), 사과(4월 초) 농가의 적기 약제 살포를 도모하기로 했

다.

김흥배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겨울철 정지전정 시기에 맞춘 가지궤양 제거는 과수화상병 예방의 첫 걸음"이라며 "정지예찰을 통해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고 적기에 예방 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장성군 장북보건지소 진료 개시 "의료복지 강화"

지상 2층 규모 내과·한방진료실 등 구비...주민 숙원 해결

장성군이 5일부터 장북보건지소 진료를 시작했다. 장성을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을 북부지역에는 현재 30개 마을에 29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구수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지역으로 지적되어 왔다. 인근 지역에 병원이나 약국이 단 한 곳도 없어, 보건지소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당초 관계 당국은 읍·면 별로 1개의 보건지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장북보건지소 건립이 어렵다는 입장

이었다. 그러나 장성군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향후 들어서게 될 3차 LH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해 지역 내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군은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수 차례 방문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결국, 사업비 지원과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었다.

새롭게 문을 연 장북보건지소는 지상 2층에 건축면적 495㎡(대지면적 1729㎡) 규모를 지녔다. 내과와 한방진료실, 대기실, 건강증진실 등으로 구성됐다.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며,

대기실과 건강증진실에는 안마기와 온열치료기가 비치되어 있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고시되어 진료와 약 조제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각고의 노력 끝에 개소한 장북보건지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파수꾼'이자 '행복 지킴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장북보건지소를 통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주민들을 위한 종합복지공간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올해 원예 특작분야 38억 원 투입

곡성군은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등 26개 분야에 총 38억 1천 1백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노후 원예하우스 시설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27억 1천 2백만 원을 올해 본 예산으로 편성했다. 작물 조기입식

과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을 완료했고, 9월 '2021년 원예 특작 분야 사업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1회 추경에 시설원에 연차

장해경감제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사업비 10억 9천 9백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량이 많은 시설원에 연차장해경감제 지원사업에는 2020년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곡성=양영희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